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이용희(부산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연구원)*

홍광표(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특별연구원)**

박수홍(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연구 논문 164편을 수집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의 중복, 미발표 및 미등재 논문 등을 제외한 총 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분야 연구는 동일 연구 주제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학회에서 이루어졌으나 2014년 현재는 한국벤처창업학회의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적 위치를 해당 학회가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관련 분야 연구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분야 연구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술연구에 편향되어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연구 영역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연구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변인의 탐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창업성공, 창업자, 창업교육, 창업역량

1. 서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해서 이어지며 세계 경제는 다년간 침체기에 빠져 있다.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며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이의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 관련 구성원들은 과거 벤처 신드롬이 일었던 시절의 호황을 떠올리며 ‘벤처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특별히 저성장과 급격한 기술 변화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벤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벤처 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변인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신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벤처의 성공과 변화관리를 위한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이 1998년 이후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가령, 경영전략 차원에서의 기업성과와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Nam & Kim, 2013; Sandberg & Hofer, 1987), 산업구조에 따른 벤처 성과 영향 분석(Sandberg & Hofer, 1987), 특정 산업 분야에서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 분석(Kim & Park, 2010; Koo, 2009; Kwak, et. al. 2009; Shin & Choi, 2010),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Chang, 2003)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과 방법에서 벤처창업 및 그 성공 요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들이 가지는 특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대분류 차원에서의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데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과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BK21플러스 연구원, tomoelee1007@gmail.com

** 제2저자,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특별연구원, lordbaby@hanmail.net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suhongpark@pnu.ac.kr

· 투고일: 2015-09-11 · 수정일: 2015-11-10 · 게재확정일: 2015-12-08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이 국내에서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Chang & Lim, 2005). 하지만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연구로, 이후 벤처기업 및 그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오랜 기간 멈춰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공한 벤처기업과 관련한 연구를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내용별로 메타분석을 통해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국내 벤처기업 창업 성공과 관련된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성과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은 이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연구가 많았으며, 어느 부분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연구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은 연구동향 파악은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의 정리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벤처기업의 성공과 관련한 연구의 방향성과 창업교육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동향 분석의 필요성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벤처’, ‘창업’, ‘성공’ 등의 주요어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분야,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메타분석 방법에 기인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벤처·창업·성공과 관련한 연구분야의 동향을 분석한다.
- 둘째, 벤처·창업·성공과 관련한 연구방법의 동향을 분석한다.
- 셋째, 벤처·창업·성공과 관련한 연구내용의 동향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벤처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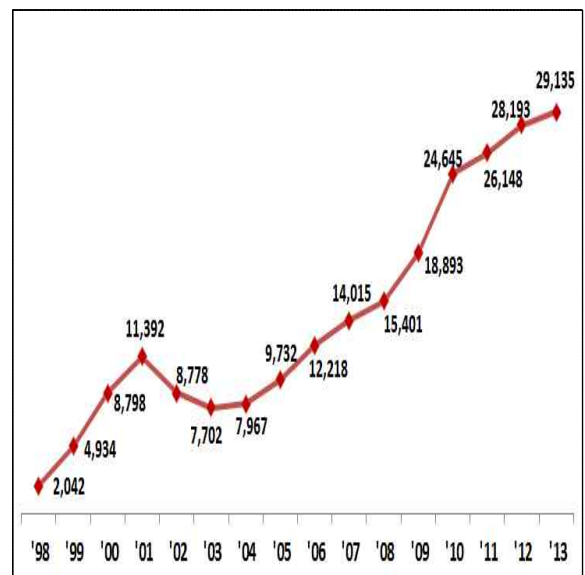
벤처기업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 초로 알려졌다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논리가 우선시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라는 형태로 군락을 이룬 것은 1955년 무렵이며(Hong, 2015), 1997년 8월에 제정

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은 실제 창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내의 창업시장은 단기간 급속한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야기된 부실한 기업들의 등장은 오히려 창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하였다(Hahn & Ko, 2007).

2000년 벤처 버블이 현실화되고, 벤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무너졌다(Hong, 2015). 2004년 이후 벤처기업 수의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유통, 서비스, 사회개발, 정보처리, 바이오, 온라인 교육 등의 산업에도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Kim, 2015).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증감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벤처인증제도가 시행된 첫해 2,042개였던 벤처기업의 수가 매년 두 배로 증가하던 2001년도 11,392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벤처 광풍이 지나가고 초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벤처기업들이 퇴출되었다. 성장단계별 분포도를 보면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벤처기업들이 2001년부터 8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벤처기업수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 즉 초기 성장기와 고도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성숙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당수 벤처기업이 중도 퇴출되었으며, 결국 성장기의 벤처기업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3).

다행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벤처지원 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 29,135개로 지난 10년간 약 두 배로 성장하였다.



<출처 : 중소기업청 2014.12.18. 보도자료>

<그림 1> 벤처확인기업 수 추이(개사)

그러나 1997년 이후 약 20여 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국내의 창업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요인

창업은 기업을 새로 창조하는 일로 위험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다. 창업의 핵심요소는 창의성, 혁신, 자원의 수집, 경제적 조직체의 설립, 이윤추구이고, 타인의 사업을 인수, 승계, 전환, 합병하여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Dollinger, 2003; Lee, 2004).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 자본, 창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창업의 3대 요소라고 한다. 이러한 요소 중 사업 아이디어와 자본은 피동적인 요소이고, 창업자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요소로써 창업자의 재능, 지식, 경험 등은 기업의 효율성, 적응력, 성장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Kim, 1987; Park, 1985). 즉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자의 역량은 벤처기업의 성공 여부와 관련한 초창기 연구에서부터 주요 관심 키워드였으며, 창업자만의 특별한 특성요인이 무엇인가를 두고 많은 연구자가 논하였다(Begley & Boyd, 1987; Sexton & Bowman, 1985). 이러한 창업자의 특성은 창업자의 나이, 경험, 교육, 가족배경 등과 같은 변인이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Bollinger, et. al. 1983; Bowen & Hisrich, 1986)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등(Brockhaus, 1982; DeCarlo & Lyons, 1979)으로 창업자의 유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창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경영자원, 연구개발, 환경, 조직, 전략 등 기업의 다양한 요소가 벤처기업의 성공과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hoe, et. al. 2000; Kim, et. al. 2008).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재무적 성과를 성과평가방법, 재무적 경영지표 등을 이용하여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Shin & Choi, 2010). 이는 물질적인 성과가 보편적인 성공의 기준이 되어 수치화된 성과만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은 개개인에게 있어 재력, 명예, 물질적인 것 외에도 행복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성공이라는 판단은 보통 개인의 삶에서는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는 마감하는 순간 성공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 성공이라는 단어는 목표를 이루어 가면서 얻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Kim & Jo, 2006). 이에 벤처기업의 창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화두로써 수적 증가로 인한 성공인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성공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논문의 범위

본 연구는 벤처인증제도가 시행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총 6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방법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Wallace(1992)의 분류에 따르면 메타분석은 분석적 메타분석과 종합적 메타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종합적 메타분석은 연구와 관련하여 선택된 특정 분야의 주제, 방법, 연구현황 등을 분석하여 특정 연구 분야를 보완하거나 연구방향의 진행방향과 정도 등을 보완하거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일반적인 범주에서 종합적 메타분석은 연구자, 연구자 수, 출판연도, 성별, 소속기관, 국가, 연구명,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배경, 연구결과, 표본 크기, 자료수집방법 및 표본추출방법, 모집단 형태, 전공영역별 논문 수 및 추세, 연구변수 종류/척도 및 수, 연구분석단위, 참고학문 영역, 논문집명, 사용언어, 인용문헌 등을 대표적인 주요어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다(Kim, 2010).

이에 본 연구는 Wallace(1992)의 접근방법에 따라 종합적 메타분석 방법을 취하고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 논문의 자료수집 및 선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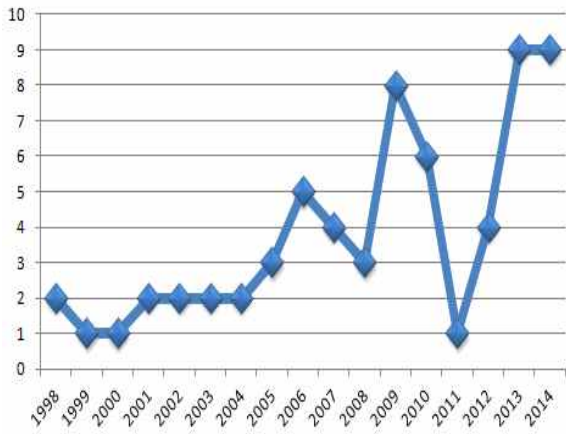
첫째,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의 온라인 검색을 이용하였다.

둘째,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키워드를 ‘벤처’, ‘창업’, ‘성공’으로 검색한 결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는 162편,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는 164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었고, 중복되는 논문, 학술대회 논문, 미등재된 논문을 제외한 결과 102편의 논문을 선정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을 위해서 102편의 논문의 원문을 확보하였고, 본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4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그림 2>.

<표 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게재편수

NO.	연도	논문 수(편)	비율(%)
1	1998	2	3.13
2	1999	1	1.56
3	2000	1	1.56
4	2001	2	3.13
5	2002	2	3.13
6	2003	2	3.13
7	2004	2	3.13
8	2005	3	4.69
9	2006	5	7.81
10	2007	4	6.25
11	2008	3	4.69
12	2009	8	12.50
13	2010	6	9.38
14	2011	1	1.56
15	2012	4	6.25
16	2013	9	14.06
17	2014	9	14.06
Total		64	100



<그림 2>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게재 편수 그래프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한 논문은 벤처인증제도가 시행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00년 벤처버블로 인하여 주춤한 양상을 보이지만 2004년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2013년부터 연구의 최고점을 달하고 있다.

3.2 분석준거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창업교육 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의 분석 준거는 교육연구방법을 준용하여 Kim과 Choi(2007)의 교육연구의 유형을 채택하였다. 연구분야와 연구내용에 대한 각각의 분석 준거는 창업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을 한 Yoo(2014)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을 분류한 Lee와 Park(2014)의 분석 준거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른 분석 준거의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벤처기업의 창업성공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준거

분석준거	세부내용
연구 분야	게재논문과 학술지 수의 연도별 비교 학술지의 연도별 게재논문 수의 추이
연구 방법	양적연구: 기술연구, 상관연구, 비교연구 질적연구: 내용분석, 사례연구, 근거이론 혼합연구
연구 내용	창업자 특성(창업자의 경험, 성취욕구적 특성, 목표지향적 특성) 조직의 특성(창업팀 완성도, 기업문화, 정보공유, 의사소통) 전략적 특성(차별화 전략, 혁신전략, 국제화 전략, 투자회수전략) 환경적 특성(산업의 진입장벽, 성장률, 생태계, 제도 및 정책) 창업교육

연구분야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벤처기업 및 창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학술지를 분석한다.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와 연도별 게재된 논문 수의 추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벤처산업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방법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했다. 양적연구는 실증주의 논리에 기초하여 변인 또는 특성 간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량적 지수를 사용한다. 질적연구는 현상학, 해석학적 논리에 기초를 두어 통제된 상황이 아닌 자연 상황에서 연구가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혼합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설계 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동향은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영향요인은 창업자 특성, 조직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IV. 연구결과

4.1 연구분야의 동향

본 연구의 연구분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연도별로 게재된 논문의 수와 학술지의 수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매년 각 학술지에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1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지만, 1998년과 2009년에는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한국창업학회지에 2편이 게재되었고, 2014년에는 벤처창업연구에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2014년 이후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연구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벤처창업연구’ 학술지가 국내의 벤처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타 학회보다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차적으로 각 학술지의 연도별 게재논문의 수를 분석해 보았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연구 관련한 학술지는 <표 4>와 <표 5>와 같이 총 31개였다. 그중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학회지는 한국벤처창업학회에서 발행하는 벤처창업연구이다. 본 학회는 2006년 설립되어 2013년 등재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한국중소기업학회가 발행하는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에 총 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소기업협회는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외에도 <표 4>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총 4편이 게재되었다. 그 외에 한국창업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표 3> 게재논문과 학술지 수의 연도별 비교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논문 수	2	1	1	2	2	2	2	3	5	4	3	8	6	1	4	9	9	64
학술지 수	1	1	1	2	2	2	2	3	5	4	3	7	6	1	4	9	3	56

<표 4> 학술지의 연도별 게재논문 수(2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

NO.	학술지명(발행기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	벤처창업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1			1			1	1	7	11
2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	1	1	1			1					1			1			8
3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창업학회)									1		1	2	1		1		1	7
4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								1		1		1				1		4
5	중소기업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1	1			1	1								4
6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				1		1					3
7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	1	2
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												1				1		2
소계		2	1	1	2	1	1	1	1	3	2	2	5	3	0	3	4	9	41

특히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이라는 연구의 키워드가 경영 및 경제 분야 이외에도 컴퓨터 정보, 부동산, 미용, 관광·레저, 조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창업환경의 확대와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학술지의 연도별 게재논문 수(1편 게재된 학술지)

연도	학술지 수	학술지명(발행기관)
2002	1	생산성논집(한국생산성학회)
2003	1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4	1	경영교육연구(한국경영교육학회)
2005	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한국자료분석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2	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 서비스경영학회지(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07	2	경영사학(한국경영사학회), 한국미용학회지(한국미용학회)
2008	1	e-비즈니스연구(국제e-비즈니스학회)
2009	3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한국기업경영학회), 외식경영연구(한국외식경영학회)
2010	3	관광레저연구(한국관광레저학회), 디지털디자인학연구(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한국조리학회지(한국조리학회)
2011	1	상업교육연구(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1	호텔리조트연구(한국호텔리조트학회)
2013	5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한국멀티미디어학회), 무역학회지(한국무역학회), 산업혁신연구(산업개발연구소), 인적자원관리연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한국생활과학회)
계	23	

4.2 연구방법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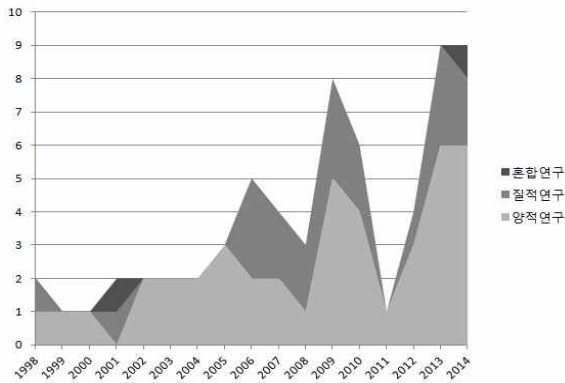
벤처인증제도가 시행된 1998년부터 ‘벤처’, ‘창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가 2004년까지 매년 꾸준히 1~2편씩 게재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등락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2014년까지 대체로 매년 1~2편씩 증가하고 있다<표 6>.

<표 6> 연도별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연구 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 연구	소계
	기술 연구	상관 연구	비교 연구	내용 분석	사례 연구	근거 이론		
1998	1			1				2
1999	1							1
2000	1							1
2001					1		1	2
2002	2							2
2003		1	1					2
2004	2							2
2005	3							3
2006	1	1		1	2			5
2007	2			1	1			4
2008	1			1	1			3
2009	4	1		1	2			8
2010	2	2		1	1			6
2011	1							1
2012	3				1			4
2013	5	1		1	1	1		9
2014	5	1			2		1	9
계	34	7	1	7	12	1	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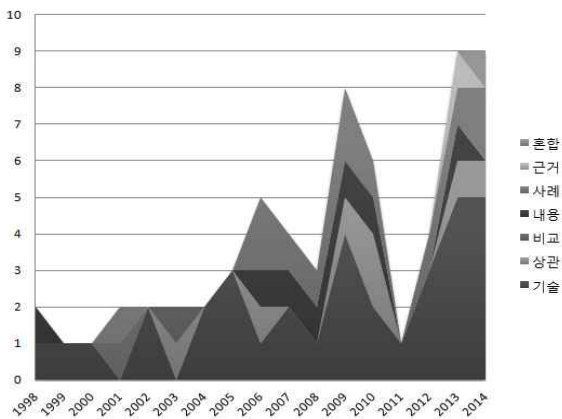
연구의 방법적인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의 초년기부터 2005년까지는 주로 양적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지만, 2006년부터는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에도 점차 관심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혼합연구가 2001년에 시행된 이후 14년의 공백을 깨고 2014년에 시행된 것을 보면 연구의 방법이 앞으로는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그림 3> 연구방법의 변화

연구방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방법의 구체적 변화

양적연구는 본 연구 대상의 주제어와 관련한 현상의 변화에 대해 질문지나 설문지를 이용하여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의 기술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상관연구와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비교연구가 있었다.

질적연구는 대부분이 사례연구로 시행되었고, 창업자의 경험과 관련한 연구가 많았다. 다음으로 텍스트나 메시지를 수집하여 벤처창업의 성공을 위한 해석학적 관점의 내용분석이 있었고, 벤처창업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이나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이론을 발견하고자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된 것은 괄목할만하다.

혼합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함께 실시하여 각각의 연구방법의 편향(Bias)을 제거하여 각각의 연구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본 연구 대상의 주제어와 관련해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은 연구방법으로 2001년과 2014년에서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양적연구가 기술연구에 치우치고, 질적연구가 사례연구에 치우쳤던 것이 2013년을 기점으로 연구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4.3 연구내용의 동향

벤처기업 창업자의 성공과 관련하여 창업자의 특성, 조직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 창업교육으로 구분하였다. Lee와 Park(2014)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공과 관련하여 창업교육을 배제하였으나 창업자의 특성을 창업역량으로 보고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창업교육은 창업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Cheon, et. al. 2013; Choi & Park, 2013; Lee & Kim, 2013)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의 동향을 창업자의 특성, 조직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 창업교육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는 것은 향후 벤처 창업자를 길러낸다는 측면으로 볼 때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구내용의 동향에 관한 분석은 <표 7>과 같으며, 각 요소에 대한 중복된 연구는 소계에 중복체크를 하였다.

<표 7> 연도별 연구내용별 연구동향

연구내용	창업자 특성	조직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	창업교육	소계
1998	1	1	2	1		5*
1999	1					1
2000	1	1	1	1		4*
2001	1		2	1		4*
2002	2		1			3*
2003	1	1	2	2		6*
2004	2	1	2	2		7*
2005	1			2		3
2006	3		2		1	6*
2007	4	1	2	2		9*
2008	2	1	2	2		7*
2009	4	1	5	2	1	13*
2010	3	1	3	4		11*
2011			1			1
2012	2		1	2		5*
2013	6	1	3	1	4	15*
2014	5	2	4	6	1	18*
계	39	11	33	28	7	118*

* 중복체크

연구내용은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많고,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 조직의 특성, 창업교육 순서로 집계되

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특성요인만을 연구하는 연구보다는 다양한 특성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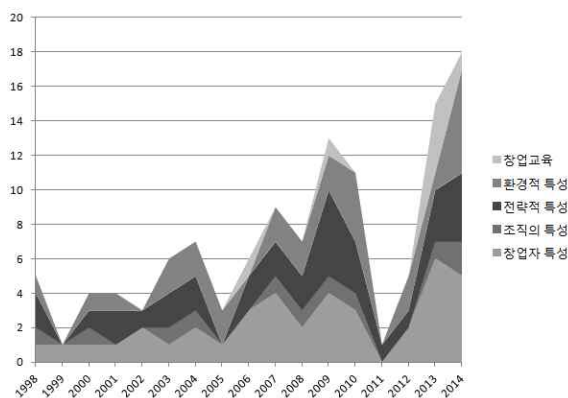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영역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자의 특성은 2000년대 이전에는 해마다 1, 2편씩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소 연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3년에 관련 연구가 6편으로 급속히 늘어 2014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해에 정부의 정책이 창조경제 및 벤처와 관련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자들 역시 창업자의 특성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보다 관심 있게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맥락에서 성공적인 벤처창업을 위한 전략 분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im, et. al.(2008)은 벤처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창업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나아가 벤처창업이 이루어지는 전략적 환경이나 경영환경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어 전체적인 연구내용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한 해인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드물다가 근래 들어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는 벤처창업이 비단 성인 창업자들에게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역량 배양의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성공적인 벤처창업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지,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과 벤처창업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역량’ 함양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 이전에는 성공과 관련한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내용은 없으나 2006년에 연구가 시행된 이후 2013년에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내용의 변화는 <그림 5>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로 연구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 연구내용의 변화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인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분야의 동향, 연구방법의 동향, 연구내용의 동향 등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중 ‘벤처’, ‘창업’, ‘성공’을 키워드로 검색한 학술지 논문 164편 가운데 중복되거나 미등재된 논문을 제외한 총 64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벤처기업 성공 요인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분야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벤처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대한경영학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한국벤처창업학회’의 ‘벤처창업연구’에서 관련 논문이 주로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벤처창업연구’에서 발표된 연구가 7편에 이르러 타 학회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바 벤처기업 및 그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의 주제가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벤처창업연구’의 학술지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 연도별로 관련 연구의 발표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에 관련 연구가 등장한 이래 꾸준히 1, 2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86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생기고 이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와 준비를 한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Choi, 2006)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관련 연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천명하면서 실업문제 해소 등을 위해 창업촉진정책, 창업경쟁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Lee & Park, 2014)으로 풀이된다. 향후 IT를 중심으로 산업이 급변하고 있어(Lee & Noh, 2014) 벤처창업이나 벤처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질적, 양적인 방면에서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벤처창업 성공 요인의 연도별, 게재학술지별 관련 연구 발표 추이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향후 벤처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벤처 창업 현장의 상황, 벤처 창업가의 인식과 요구에 근접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질적연구방법과 혼합연구방법을 보다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벤처창업 성공 요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방법은 총 64편 중

양적연구가 42편을 차지하고 있어 67%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다. 또한 양적연구 중에서도 현상을 단순히 기술한 기술연구가 34편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질적연구 역시 현상의 사례를 단순하게 분석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질적연구에서 근거이론에 기인하여 창업성공 요인에 대한 이론을 밝히고자 한 연구(Back & Seo, 2013), 벤처창업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Jung & Park, 2014) 등이 등장하고 있어 벤처창업과 관련한 연구에서 그 방법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창업이 그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그 안에서 예비 창업자나 벤처 창업자들이 직접 어떤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 부분의 원리를 제시하려는 방법으로써 질적연구(Kim, 2010)는 관련 연구를 보다 유의미한 측면에서, 그리고 그 폭의 확장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리된 현재까지의 벤처창업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의 동향에 기인하여 창업 성공 요인이 어떠한지에 대한 메타연구,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연구, 혼합연구 등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벤처창업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보다 풍성하게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까지 연구된 벤처창업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그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편향되어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벤처창업에 관련한 연구 중 그 성공 요인이 창업자의 심리특성과 창업자의 성격 등과 관련한 개인 변인에 기인한다는 연구(Kim, 2008; Kim & Kim, 2013; Park & Yang, 2014; Seol & Hong, 2013)의 연구, 창업 성공의 핵심이 창업을 위한 전략 수립이나 그를 둘러싼 환경에 기인한다는 연구(Shim & Cho, 2013) 등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벤처창업의 특성상 전문분야에 관련한 기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의 준비도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Lee & Noh, 2014). 나아가 관련 분야를 얼마나 일찍,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벤처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Lee & Park, 2014). 따라서 현재까지 벤처창업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 영역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같은 결론에 바탕을 두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남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벤처창업 성공 요인과 관련한 연구 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그 요인에 대한 변인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공적인 벤처창업을 위한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벤처창업자의 개별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개별적 특성이 창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되기 위하여 창업자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창업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벤처창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 역시 질적연구, 혼합연구, 메타분석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벤처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한 역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

- Back, J. H. & Seo, J. H.(2013).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the Successful Process: Consumer Perspective of Entrepreneuria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619-635.
- Begley, T. M. &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 Bollinger, L., Hope, K. & Utterback, J. M.(1983).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12(1), 1-14.
- Bowen, D. D. & Hisrich, R. D.(1986). The Female Entrepreneur: A Career Development Perspectiv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2), 393-407.
- Brockhaus, R. H.(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C. A. Kent, D. L. Sexton, and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39-57.
- Chang, D. S. & Lim, S. B.(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O(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Success of Venture Creatio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8(3), 1121-1143.
- Chang, S. D.(2003). A Comparatue Study of Succeeded and Failed Venture Firm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6(2), 101-125.
- Cheon, P. U., Chung, D. S., & Ock, Y. S.(2013). An Empirical Research on Success Factors of One-person Creating Company of Mobile App Industry in the Busan Region,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16(8), 982-993.
- Choe, M. K., Shin, J. K. & Nam, J. H.(200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Korean Entrepreneurial Business Ventures, *Business Management Review*, 33(1), 251-278.
- Choi, J. I. & Park, C. G.(2013). The Key Success Factor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 from USA University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3), 85-96.
- Choi, S. R.(2006). A Study on the Consulting Method for Startup of Small and Venture Business: A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1), 232-259.
- Dollinger, M. J.(2003).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3th Edition, N.J.: Prntice-Hall.
- DeCarlo, J. F. & Lyons P. R.(1979). A Comparison of

- Sel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inority and Non-Minority Female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7(4), 22-29.
- Hahn, J. H. & Ko, U. J.(2007).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ship Programs in the Graduate Schools of Korea and the U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6(2), 105-131.
- Hong, K. J.(201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the Efficiency Change of Korean Venture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Jung, G. O. & Park, J. B.(2014). A Theoretical and Case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Corporative Spin-off Venture in Daejeon Region, *Regional Industry Review*, 37(1), 1-23.
- Kim, B. N.(2015). *The Effect of SME's Characteristics and Growing Pains on Business Performance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H. R.(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elf Leadership of Potential Founders in the Micro Business Area on Founder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6), 2393-2420.
- Kim, H. R. & Kim, J. J.(2013). The Effects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cusing Up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6), 1449-1474.
- Kim, J. H.(1987). A Study on the Start-up Small Business and It Supporting Measures in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9(1), 145-175.
- Kim, J. H., Kim, D. H., & Kim, H.(2008). A Case Studies on the Success Factors of Innovative SMEs, *The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3(2), 65-88.
- Kim, S. & Jo, Y. H.(2006). Study of Core Subjects and Strategy of Venture Companies in Each Growing State, *The Journal of E-Business*, 7(1), 119-140.
- Kim, S. H. & Park, J. W.(2010). The Effects of Success Factors for Starting Busines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on Management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6(2), 215-231.
- Kim, S. W & Choi, T. J.(2007). *Research Methodology Education*, Seoul: Hakjisa
- Kim, Y. C.(2010), *The Qualitative Research*(3rd). Seoul, CA: Academy Press.
- Kim, Y. K.(2010). A Review of the Meta-Analysis in Major Academic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in Korea.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4), 1833-1858.
- Koo, K. C.(2009). A Study on the Successful Strategy for Mobile Game Busines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2), 1-17.
- Kwak, J. E., Bahn, S. S., & Jeong, D. Y.(2009).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Bio-Venture Star-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2), 18-38.
- Lee, B. W.(2004). An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Effects of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29(2), 1-11.
- Lee, M. J. & Kim, J. G.(2013).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dust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ucc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9), 55-65.
- Lee, S. B.(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Capital on Start-up Performances mediated by Nascent Entrepreneur's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Lee, S. H. & Noh, S. H.(2014).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ICT Convergence Type-Specific Start-Up Enterprise: Mainly the Case Stud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203-215.
- Lee, Y. H. & Park, S. H.(2014).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Venture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231-244.
- Nam, M. S. & Kim, U. C.(2013). Corporate Activ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of Chairman In-Young Ching.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28(1), 317-347.
- Park, C. Y.(1985). An Analysis of the Supporting System of New Venture Creation In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11(1), 113-138.
- Park, J. Y. & Yang, H. S.(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28.
- Seol, B. M. & Hong, H. S.(2013). A Study on the Business Opportunity Source and Searc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19-28.
- Sexton, D. L. & Bowman, 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s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29-140.
- Shin, Y. S. & Choi, M. G.(2010). A Study on Success Dactors for Entrepreneurs in IT Ventur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7), 2371-2385.
- Shim, S. C. & Cho, J. H.(2013). A Study on the Success and Failure Determent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orean SME's Success,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013(1), 141-150.
- Wallace, W. I.(1992).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G. Ritzer(ed.), *Metatheorizing*, New York: Sage, 53-68.
- Yoo, J. H.(2014). Meta-Analysis About the Study Related with Foundation: As the Center from 1998 to 2013 Treat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51-67.

부록 : 분석대상 논문

NO.	연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1	1998	이장우 장수덕	벤처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2), 69-95
2	1998	김홍범	한국 벤처기업의 성공전략과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2), 97-127
3	1999	안준모 김종인	한국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자의 경험, 지식요인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1), 31-49
4	2000	이장우 이현숙	벤처기업의 유형구분과 경영성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3(2), 3-31
5	2001	정재영	이스라엘 벤처기업 창업 성공사례와 성공요인 조사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4(2), 61-89
6	2001	이장우 장수덕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의 관점	중소기업연구, 23(4), 23-49
7	2002	서정환 신용백	성공/비성공 벤처기업 창업자 성공요인 추출과 비교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16(1), 57-72
8	2002	빈봉식 박정기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135-158
9	2003	장수덕	성공한 벤처기업과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차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6(2), 101-125
10	2003	김승운	창업단계의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0(4), 65-84
11	2004	조현숙 김영문	성공적 창업을 위한 벤처기업 예비 창업자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3, 25-49
12	2004	박정민 나상균 정호일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이 성공요인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7(5), 2069-2089
13	2005	장대성 임성배	EO(Entrepreneurial Orientation)와 창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8(3), 1121-1143
14	2005	최종호 윤종수	웅인지역 IT산업 육성 성공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7(5), 1857-1869
15	2005	최종호 윤종수	웅인지역 IT산업 육성 성공전략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0(5), 249-256
16	2006	박대섭 신충섭	외식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7(1), 201-222
17	2006	하규수	벤처창업전문과정(EIP) 사업추진 성공사례와 확산전략	벤처창업연구, 1(1), 127-156

18	2006	최상렬	중소·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방법 연구: 컨설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1), 232-259
19	2006	이상석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45-64
20	2006	이창석	부동산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28, 62-84
21	2007	조성태 김윤	미용업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1), 310-321
22	2007	서근하	한국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동력	중소기업연구, 29(4), 265-293
23	2007	신금순 양동우	외식업 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지향적인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2639-2666
24	2007	조대우	대만 남부과학공업원구 성공 1호 바이오기업 창업자, 탕문만(湯文萬)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	경영사학, 22(3), 285-312
25	2008	구경철 유왕진	벤처캐피탈산업 현황 및 향후 과제	한국창업학회지, 3(1), 139-159
26	2008	이은재 심완섭	지식정보 시대 소상공인의 창업성공 메커니즘 모델링 수립	e-비즈니스연구, 9(2), 65-83
27	2008	전방지 한미라	창업 경로: IT분야 여성 창업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산업경제연구, 21(6), 2909-2929
28	2009	박지영 최강화 김수옥	한국 벤처농업의 성공요인과 성공모델에 관한 이론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2(1), 55-76
29	2009	반성식 송경모 김성태	벤처기업의 성공도 평가지표로서 신용등급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1), 181-204
30	2009	김대호 김홍	기술창업 장애요인 실태조사	벤처창업연구, 4(1), 67-88
31	2009	박영수 권용주	외식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교육에 대한 수강생과 강사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을 대상으로	외식경영연구, 12(2), 7-28
32	2009	구경철	모바일 게임사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4(2), 1-17
33	2009	곽지은 반성식 정대울	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4(2), 18-38
34	2009	박상의 박찬황	한국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6(2), 63-82

35	2009	이길형	소규모 지식기업의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경영연구, 16(3), 143-162
36	2010	김선진	1인 창조기업 유형 분석 및 성공전략 연구: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1), 69-77
37	2010	김상호 박진환	외식산업 창업 성공 요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6(2), 215-231
38	2010	반성식 장성희	조직 유형을 고려한 여성창업자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3(2), 813-836
39	2010	강성일 이계희	제주지역 관광관련 지역음식점 사업자 특성에 따른 사업동기, 성공요인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3), 195-209
40	2010	신유섭 최명길	IT 창업 기업의 창업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2371-2385
41	2010	백동열 이동명 이철규	사회적기업의 공헌활동이 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5(3), 21-42
42	2011	박재환 김재호 윤인철	기업가지향성 및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5(2), 243-265
43	2012	권경섭 김병진 하규수	국가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세라믹하이드로피어시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7(1), 225-232
44	2012	권오형 문중범 김인섭	수퍼 가젤형 기업의 특성과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45-64
45	2012	배혜숙 허진 김영길	창업자 특성에 따른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1(2), 377-393
46	2012	한승일 문중범 유왕진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7(4), 33-49
47	2013	김수현 유봉호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677-2687
48	2013	백재화 서정희	창업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창업 성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619-635
49	2013	천평욱 정동선 옥영석	부산 모바일 앱 산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16(8), 982-993
50	2013	박경미 황재원	벤처기업의 제품 상용화 성공요인	산업혁신연구, 29(3), 1-41
51	2013	이미자 김중규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55-65

52	2013	최종인 박치관	대학 창업교육 핵심 성공요인: 미국 대학 사례의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8(3), 85-96
53	2013	유봉호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54	2013	김장훈 박진웅 이근철 권기욱 김주권	Born-Global 기업의 동태적 성공요인 분석: 성공기업 사례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38(5), 409-436
55	2013	남정민 전병준 박정우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 생존에 대한 중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27-43
56	2014	천평욱 정동선 옥영석	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201-219
57	2014	강원	성공한 중소기업의 창업초기 경영실적과 정책의 방향	벤처창업연구, 9(3), 1-11
58	2014	정중희 조지운	소상공인 성공창업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9(2), 137-159
59	2014	유영글 장익훈 최영찬	국내 창업분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현황과 성공전략	벤처창업연구, 9(4), 1-12
60	2014	하환호 변총규	긍정적 인지편향이 창업시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4), 145-153
61	2014	남정민	업종별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업종별 창업자의 사업소득 및 창업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9(5), 13-20
62	2014	방중혁 박상문 신중경	예비 청년창업자들의 핵심성공요인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247-254
63	2014	이용희 박수홍	벤처기업 창업자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창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탐색	벤처창업연구, 9(6), 231-244
64	2014	이서한 노승훈	ICT융합 유형별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203-21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Venture Companies: with Priority Given to Domestic Articles Between 1998 and 2014

Lee, Yong-hee*
Hong, Kwang-pyo**
Park, Su-h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rea, theme and method of domestic articles on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venture companies, which were presented between 1998 and 2014, according to related basic classification criteria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ies. It's basically meant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the success of venture business and to be of practical use for the success of venture companies in our country. After related earlier studies were analyzed, 164 articles were collected, and 64 articles were selected from among them. The articles that were overlapped, not presented or not registered were excluded. The related studies had been conducted by different learned societies that were interested in the same research themes, and the studies were primarily led by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as of 2014, especially b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that was a journal published by this society. This society seemed to have taken the initiative in this field.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related studies increased in number due to the shift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the chang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as the number of the studies has been on the steady rise since 2012. In terms of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especially descriptive studies, were prevailing.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research into this field, a wide variety of research methods should be utilized in the future. As for the sphere of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strategic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mainly covered as the success factors of venture business. More diverse variables should be explored as well to make more advanced, extended research in the years to com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success of venture busines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Keywords: Venture Business, Start-up Success,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 Ph. D. Candidate. Dep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omoelee1007@gmail.com

** Ph. D. Dep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lordbaby@hanmail.net

***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hongpark@pnu.ac.kr